



제2차 물류표준화 Workshop을 마치며

유영길 /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연구원표준계획팀장

물류표준활성화 사업이 시작된지 벌써 2년차에 접어들었다. 제1차 물류표준화 Workshop에 이어 이번에 제2차 행사를 강원도 문막에서 마감하였다. 국내 산업계의 물류표준을 활성화하여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물류표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포장 표준화에 먼저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1차 연도 사업에서는 포장, 파렛트 관련 규격 15개 규격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관련 세미나와 도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차 연도에는 물류 관련 규격으로 포장, 파렛트, 창고, 물류바코드 등의 규격을 총 34개 제·개정 할 예정이며, 이미 세부 사업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Workshop은 사업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었으며, 더불어 향후 사업 방향을 정립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내용은 크게 일관수송용 파렛트에 관한 내용 두 개와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구축 방안, 물류 바코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처음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는, 포장표준화 성공사례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관수송 표준파렛트 보급을 위한 수송수단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이였다.

포장과 파렛트는 마치 실과 바늘처럼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과거는 단일 짐꾸러미를 단위로 하였지만, 화물의 단위화, 대량화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는 파렛트라는 수송기기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듯 포장 모듈과 파렛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송문제를 접근하다보면 많은 난해한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일관수송이란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조금은 문제가 단순화된다. 이러한 접근 방향을 지니고, 발표된 일관수송용 파렛트 보급을 위한 포장표준화 성공사례의 내용은 생활용품업체, 전기전자업체, 화섬업체 등 업종별로 관련상품들에 대한 곁포장, 파렛트, 창고 등에 표준화의 성공 사례를 말하고 있다.

이들 업종별 포장표준화의 성과는 수 십억원

이 이르고 있고, 물류표준화를 통한 포장물류비 절감, 포장설계합리화 등을 통한 고객만족과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과대포장 감소 등은 표준화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또한 표준화는 이러한 계량적인 효과 이외에 관련업체의 장래 물류효율화, 기계화, 합리화에 기반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작업인 것이다. 두 번째 시간에 발표되었던 수송수단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이란 내용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합과 철도 화차에 대한 문제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문제점을 조합해서 살펴보면, 창고·보관 시설의 규격화 인식부족, 상·하역기기들의 비표준규격, 포장모듈화 부진, 파렛트화 부족, 포장설계시 물류관련 다른 규격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이 있었으며, 철도화차 내폭과 문짝이 전근대적이란 점과 물류모듈과 트럭하대와의 정합성 문제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두 발표는 포장과 파렛트, 화물적재함, 철도화차로 이어지는 수송의 기본이 되는 요건들이기 때문에 모든 참석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리고 물류표준화 사업의 또 하나의 결과인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는데, 이는 지난 1차 연도의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구축 사례에서 진일보한 내용이었다. 특히 물류시스템에서 환경을 논하는데 있어 포장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과대포장, 포장재질, 회수물류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 졌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기존 물류활동을 순물류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역물류의 내용을 회수, 수거, 재활용, 재생산, 이차판매 등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예전에 간혹 언급되어왔지만, 물류시스템 전체를 범위로

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겉포장 표준화는 수송과 아울러 이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문제로 더욱 연구가 집약되어야 할 분야라는 의견이 많았다.

Workshop의 목적이 2차 연도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인 만큼 금번 행사에서도 토론회를 통하여 전문가, 산업계 등 관련 분야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2일차에 개최된 ULS 개정 필요성 및 개정에 관한 소견 발표와 토의장이었던, 토론회에서는 IT의 급격할 발달과 이들 기술의 ULS 도입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세미나 마지막 발표 내용이었던 물류정보화의 기반인 물류바코드 활용 사례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ULS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듯 하다.

ULS는 Hardware적인 부분들에 대한 표준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바코드의 물류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점차로 급증하고 있고 그 응용분야가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토론회의 결과와 더불어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코드의 응용분야를 요약하면,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에 근본이 되는 것으로, 공급업체의 주문 포장, 배송차별 상품 포장, 수취인 분류, 보관 위치, 재고 확인, 전표 등 Software적인 물류 부문 대부분에 활용된다. 다음은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ULS의 기본 틀로 파렛트 1100×1100을 근간으로, 선진외국의 움직임 1200사이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ULS는 파렛트, 포장 표준화를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물류현장의



급격한 변화인 바코드, RFID 같은 기술들도 함께 개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ULS에는 철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ULS가 발전적인 물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통전표로 인하여 제조와 유통업체의 마찰이 심각하고, SCM 등장이후 업체의 정보 제공이 필요함에도 유통업체가 자신만의 코드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표준도 ULS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ULS의 보급확산이 중요한데 이는 고객가치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ULS를 만든다 할지라도 산업계 보급은 매우 힘들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토론자와 전문가, 업체의 토의 내용이었다. 특히 관심을 끈 분야는 당연히 정보와 업체 보급 문제였다. ULS의 개정과 정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지만, 산업계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ULS를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세금감면의 인센티브 부여나 법적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ULS를 업체 담당자들이 알기 쉽고 활용하기 쉽도록 하는 책자의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긴다.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류란 참 거대한 시장이며,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바다와 같다”는 생각이 든 적 있었다. 정부와 연구소의 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은 Workshop의 토론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

1차 연도 국내기업의 물류표준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물류표준화 수준이 향상된 모습을 보고, 많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차 연도 Workshop를 통하여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연도의 사업을 구상하면서 당해 연도와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와 현재에 물류란 큰 화두를 가지고 각 부처와 각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축적된 자료가 빈약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왜 늘 새롭게만 시작하는가”란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참 풀기 어려운 과제인 듯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그러하듯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열쇠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답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언젠가의 통일과 함께 대륙과 해양진출을 위한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에도 또 다시 시작할 것인가, 연구결과와 축적과 자기 소속기관의 이익을 떠나 대의적인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아시다시피, 물류는 물자의 흐름이고, 이는 몸이 흐르는 피와 같다. 원활하지 않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제2차 물류표준화 Workshop에서 있었음을 보고하면서 글을 맺는다. ☞